

꿈이 있는 곳에 반드시 길이 있다! 한 걸음씩 꾸준히 도전하자.

- 이름 : 최단아
- 근무기구 및 부서 : UNDP Bangkok Regional Hub
Youth and Civil Engagement Unit, Governance and Peacebuilding Team
- 직위 : UN University Volunteer in Youth and Civil Society
- 지원 경로 : KOICA-UNV 대학생 봉사단 2기
- 근무 기간 : 2017.1.27.-2017.8.3.

Connecting the dots: 간절한 만큼 노력한다면 잡을 수 있는 기회, UNV

“나 같은 애가 국제기구 진출이라는 꿈을 가져도 되는 걸까?” 대학교 3학년 봄, UN에서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지만 스스로 생각해도 터무니없는 상상인 것 같아 고개를 저었다. 영어권 국가 거주 경험도 갖 다녀온 필리핀 유학 6개월이 전부였기에 턱없이 부족한 영어실력을 가지고 국제기구 취업으로 진로를 갑작스레 전환한다는 것은 분명한 모험이었기 때문이다. 이제껏 공부해온 일어교육학 전공을 포기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 자신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에서 목격했던 ‘가난한 이들이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개발도상국의 여러 사회·구조적 문제에 관한 물음과 그 참상이 머릿속에 남아 여전히 마음을 아프게 했다. 특히, 매일 길에서 마주했던 학교에 가지 못하고 구걸하는 어린 아이들과 당시 필리핀 전역을 휩쓴 슈퍼 타이퐁 ‘Haiyan’ 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집 (혹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의 얼굴이 잊히지 않았다. 무분별한 개발의 부작용으로 빈부격차, 부정부패 및 환경 문제가 심각한 필리핀을 보며 개도국의 ‘소외된 이들과 개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기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정책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이 겪는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일이라도 하고 싶다는 마음에 인도적 지원 기구에 관심이 생겼지만, 어디서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다.

국제기구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만 커지고 있을 때 참가하게 된 ‘대학생을 위한 외교부 워크숍’ 에서 국제 개발 협력이라는 분야를 처음 접하게 되었고, 원조 (aid)의 측면에서만 어렵פות이 이해하던 국제개발과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공부할 수 있었다. UN은 정부 간 기구이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지식, 경험 및 자원을 연결하여 개도국의 제도적 발전과 좋은 거버넌스 구축을 돕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궁극적으로 그동안 고민해오던 빈곤 문제 해결과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일하는 곳이기에, UN은 그야말로 나의 역량과 열정을 모두 쏟아 붓고 싶은 곳임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 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열망이 더 커져갔다.

외교부 워크숍에서 얻은 정보로 어떤 과정을 통해 국제기구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지 파악하였고, UN 취업을 위해서 좀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를 계기로 외교부 서포터즈, 대사관 기자단, 전국모의유엔회의, 청년포럼, 통역, 인턴십, 관련 학회 및 NGO 봉사 등의 활동을 통해 실무자들을 만나며 관련 분야 진로를 더 탐색할 수 있었다.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UN과 개발협력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나의 역량도 발전됨을 느꼈고, 내가 갈 길이 맞다는 확신과 자신감이 조금씩 생겨났다. 특히, 외교부 서포터즈 기사 작성을 위해 참가했던 UN 개발협력포럼 고위급 심포지엄에서 UN직원을 실제로 처음 만나 그분의 국제기구 진출 과정과 조언을 듣게 된 것은 내게 큰 동기가 되었다. 나도 세계 평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일하는 UN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졌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던 중 당시 새로 생긴 KOICA-UNV대학생 봉사단 파견 사업을 알게 되었고, 대학생 신분으로 UN에서의 커리어를 확실히 시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부 공부를 마치고 파견 나갈 수 있는 다음 해 지원을 염두에 두고 관련 경험과 영어 실력을 쌓으며 UNV 자격 기준을 맞추기 위한 준비를 했다. 2기 모집 때 ‘Civil Society and Youth’ 직무가 열렸고, 청년 활동가로서 쌓아온 나의 시민사회 관련 경력을 연결하여 지원서를 작성했다. 5개월의 선발 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하였고 KOICA 교육 이후 UNDP Bangkok Regional Hub로 파견되었다. 방콕에서 많은 UN동료들의 도움과 조언을 따라 영국에서의 ‘International Education and Development’ 석사과정에 진학할 수 있었으며, 석사 학위와 ‘코이카 UN University Volunteer’ 경력 덕분에 ‘외교부 UN Youth Volunteer’로 선발되어 현재 가이아나 UN WOMEN으로 파견 올 수 있었다.

되돌아보면, 5년 전 필리핀에서 생겨난 국제사회에 대한 관심이 외교부 UNV 청년봉사단으로서의 커리어로 연결되기까지 매번 하나의 경험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기회를 불러왔다. 이 글을 읽는 누구라도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현재 할 수 있는 일부러 차근차근 경험을 쌓기를 추천한다. 하나씩 도전하다 보면 어느새 희망하는 직무에 맞는 적격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스로 경험하는 모든 것은 경쟁력이 되어 자신만의 특별한 스토리텔링이 될 것이다. 그간의 경험과 경력을 잘 잇는다면 UNV 지원서와 인터뷰에서도 본인만의 스토리가 크게 빛을 보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원 과정: UNV Profile, Interview, Written Test & Reference Check

총 세 번의 UNV 지원을 통해 UNDP, UNWOMEN, UNV와 화상면접을 진행한 나의 경험과 전·현직 UNV 지인들의 조언을 종합하여 선발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먼저, ymam.unv.org에 UNV Profile¹ (이력서)를 등록 후 UNV 본부 인사담당자의 screening을 통과해야 한다. 이후 UNV로부터 (지원한 직무 중) 본인의 이력에 가장

유관한 기관 한 곳의 후보자로 선발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면접 응시 여부를 묻는 이메일을 받게 된다. 면접을 보겠다는 의사를 표하면, 대개 2 ~ 4주 정도 후에 파견 기관의 담당자 혹은 파견 국가의 UNV Field Unit의 직원으로부터 면접 날짜를 통보받게 된다. 면접 후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뒤에 최종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실무 경력이 거의 없는 대학생 UNV는 해당되지 않지만, 청년봉사단 및 전문봉사단은 후보자가 제출한 추천자 목록을 통한 평판 조사와 필기시험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필기시험은 직무와 관련한 주제로 essay를 작성하거나, 관련 보고서 및 기사 등을 요약하거나, policy paper를 만들어 제출하거나, 직무와 유관한 출판물 혹은 논문이 있다면 보내라고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writing 능력을 검증한다. 평판 조사는 전·현직 동료에게 연락을 취해 추천서를 요구하거나, 후보자가 UNV Profile에 기재한 근무 경력과 실제로 수행한 업무가 동일한지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면접에 대비하여 파견 국가의 관련 정책, 기관의 사업 및 직무에 관해 예상되는 질문을 만들고 답변을 미리 작성한 후 녹화하며 연습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mock interview를 하고 피드백을 받는 것이 큰 효과가 있었다. 코이카 UNV 지원 당시 한국어 면접과 영어 토론 면접이 부담이 되어 모집 설명회에서 만난 다른 지원자들에게 스터디 그룹을 제안하고 같이 준비한 것이 최종 합격의 원동력이었다. (5명의 스터디 원 중 면접을 포기한 한 명 빼고 모두 UNV 파견을 다녀왔다!) 그 동안 다양한 면접을 보며 깨달은 것은 대본을 짜 두면 예상치 못한 질문과 상황에 맞닥뜨리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임기응변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면접 이메일을 보낸 담당자의 이름과 DoA를 기반으로 파견 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면접을 진행할 팀원의 담당업무와 연구 경력 및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등을 검색하여 내가 맡을 직무의 전반에 관한 자료를 최대한 많이 읽었다. 이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분야 전문성 및 역량 기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만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궁금한 점이 있냐는 질문에 미리 조사한 사업에 대해 알고 싶은 점이나 내가 어떻게 그 프로젝트에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을 물어 화상 면접에 참가한 2~5명의 면접관 (UNV 및 파견기관 담당자) 모두에게 나의 열정과 간절함을 확실히 보여주기도 했다. UNV 면접인 만큼 직무 수행 능력과 더불어 volunteerism에 관한 질문을 자주 물어보므로 이에 대해 미리 생각해보면 좋다. 마지막으로, 관련 UN보고서를 평소 많이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해당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와 UN의 보고서·기획안에 많이 쓰이는 어휘가 따로 있기 때문에 많이 읽어 두면 필기시험뿐만 아니라 면접 과정에서 어필이 되는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수월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1 코이카·외교부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고도 개별적으로도 UNV로스터에 등록 및 지원이 가능하다.

UNDP Bangkok Regional Hub (이하 BRH) and the Youth Unit

2017년 1월, 4주 간의 코이카 국내교육을 마치고 바로 짐을 싸서 태국 방콕으로 출발했다. 간절히 바라온 순간인 만큼 하루라도 더 빨리 출근하고 싶은 마음에 결국 29명의 UNV동기들 중 제일 먼저 파견 근무를 시작했다. UN기구에서 교육 분야 혹은 청년 분야의 Policy Specialist로 일하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세운 만큼, UNV로서 UNDP의 일원이 되어 시민사회와 청년의 역할과 기회를 확대하는 업무를 맡을 수 있음에 정말 감개무량했다.

아시아 태평양의 24개 국가사무소 및 지역 규모의 사업을 총괄하는 BRH는 본부 Regional Bureau for Asia and the Pacific (RBAP)에 소속되어 UNDP의 다섯 업무 (포괄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 거버넌스와 평화구축; 기후변화와 재난위기경감; 양성평등; 개발영향)을 담당하는 각각의 전담 부서가 있는 큰 지역사무소이다. RBAP의 절반이 BRH에 위치한 만큼 UNDP 총재를 포함하여 본부 직원들을 사무실에서 마주칠 기회가 잦았기에 senior manager의 자질과 리더십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무실 옆 건물 UNCC회의장에서 열리는 국제 정책·전문가 그룹 회의에 읍저버로 참석할 기회와, 다른 UN기구에서 주최하는 brownbag 세미나 및 커리어 컨설팅 모임 등 국제기구 지역사무소가 모여있는 방콕의 지리적 특성의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었다. UN Compound 내에 Language Learning Centre도 있었기에 상사의 배려를 받아 일주일의 세 번 점심시간을 활용해 제2외국어 수업을 듣는 등 파견 기간동안 배움의 기회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Youth Unit은 Regional Policy and Programme Support Division (RPPS)의 Governance and Peacebuilding Team에 속하여 평화구축, 시민사회 및 경제 활동에서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를 증진시키는 사업을 맡는다. 아태지역24개의 국가사무소의 청년 사업 담당자를 통해 각 국가마다 진행 중인 청년 사업을 모니터하여 피드백을 제공하며 정부의 청년 정책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한다. 나는 본부와 국가사무소 담당자의 중간에서 원활한 소통을 연결하는 지역사무소의 위치에서 본부와 필드를 모두 접하며 각각의 위치에서 요하는 전문성과 역량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 출근날부터 마침 BRH의 2017년 상반기 ‘청년 사업’ 기획 회의가 열려 모든 팀원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다. Youth Unit은 유일한 전문직원 (P3)인 Youth Programme Specialist를 필두로 Youth Economic Empowerment업무 담당 컨설턴트 두 명, Youth Civic Engagement업무 담당 컨설턴트, Communications 담당 컨설턴트, Peacebuilding 업무 담당 인턴에 코이카 UNV 두 명까지 합류하여 8명의 활기찬 workforce를 완성하였다. UNDP

Youth Strategy를 기반으로 1,2분기에 예정된 행사별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홍보 방안을 논의하고 업무 분장을 하는 것이 회의의 목표였다. 팀원 과반수가 Citi은행 등의 보조금이 확보되면서 비중이 가장 커진 Youth Economic Empowerment 사업에 투입되었다. 나는 DoA 적헌대로 Youth Civic Engagement업무와 더불어 Peacebuilding 관련 행사를 맡았다.

UNV 파견 기간 동안 동료 및 상사에게 본인의 전문성, 부족한 점, 더 일해보고 배우고 싶은 부분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피드백을 받는다면 성장의 기회도 더 많아질 것이다. 나 또한 자상하고 능력 있는 사수 컨설턴트들 및 보스 (P3)의 피드백과 관리 감독 덕택에 효율적으로 일하는 법을 배우고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 출근 첫 주에 보스가 점심을 사주며 6개월 간 업무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과 본인에게 바라는 점이 있는지 물어보며 UNV가 끝날 때쯤에는 6개월간의 여정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자고 했다. 한 (두)달에 한번씩은 보스의 집에서, 주중 절반 정도 동료들과 식사를 같이하며 친구이자 동료로서 자주 소통했다. JPO프로그램을 마치고 각각 P3와 컨설턴트로 UNDP에 자리를 잡은 두 명에게 진로와 관련된 조언을 얻기도 했다. UN에서 일하기 위해 가족과 따로 또 같이 대륙을 옮겨 다닌 이야기 등 국제기구 직원의 현실적인 고충과 고민을 나누며 나의 미래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담당 업무 1.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시민 사회 및 청년의 사회·정치적 참여 역량 강화

1) The #Case4Space Campaign and Photo Competition / Exhibition

Case4Space 캠페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청년들이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의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파트너로서 시민사회에서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청년의 사회·정치적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캠페인이다. 캠페인 담당자로서 12월에 개최되었던 Case4Space 컨퍼런스의 결과 보고 및 다수의 UN기관 및 NGO로 구성된 파트너십 유지와 case4space.org 웹사이트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했다. 3월부터는 Case4Space 사진 공모전을 기획하고 수상작 심사와 우승자 선발, 전시회 개최까지 주관하였다. 5주 간 매주 *‘집회·결사·표현의 자유; 청년 여성과 시민 사회; 온라인 안전과 보안; 청년의 사회적·정치적 참여권; 지역 커뮤니티의 시민·사회적 공간’*의 순서로 바뀌는 주제에 맞는 사진을 #Case4Space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는 캠페인 (공모전)에 더 많은 아태지역 청년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홍보 업무를 맡아 Communications 컨설턴트를 보조하였다. 캠페인에 참가한 청년들이 social media공간에서 매주 시민사회의 중요한 의제에 대한 생각과 사진을 나누며, 또래 청년들의 사회적·정치적 참여를 장려하고 서로의 시민의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우승자 1명을 UN Conference Centre에서 개최된 아시아 청년 정책 워크숍과 Case4Space 사진 전시회에 초청하는 일까지 도맡아 했다.

2) Workshop on Evidence-based Policies on Youth Development in Asia 및 USLS Conference

5월 개최된 아시아 청년 정책 워크숍에서 ‘Youth Civic Engagement’를 주제로 한 세션을 담당하여 기획안을 작성하고 청년활동가 및 전문가로 구성된 5명의 패널을 초청하는 업무를 맡았다. 청년정책 입안을 담당하는 정부관계자들을 대상으로 Case4Space캠페인 성과 보고를 하고자 직접 패널에 참가하여 발표하였고 토론을 이끄는 MC역할을 했다. 마찬가지로, 8월 개최된 University Scholars Leadership Symposium (USLS)을 ‘Youth Civic Engagement’ 주제로 한 세션을 한번 더 기획하고 concept note를 작성한 뒤 UNFPA, UNESCO 등의 Youth Specialist를 강연자로 초청하여 협력기관과 두 차례의 사전 기획 회의를 진행하였다. Symposium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Case4Space 캠페인을 소개하기 위해 행사 기간 내내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세션 발표 때에는 ‘청년의 사회적 참여와 봉사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Youth Activist와 UN Volunteer로서 활동한 경험과 느낀 점을 공유하였다.

3) Asia-Pacific Interagency Network on Youth (APINY)

APINY는 아태지역에서 청년 사업을 하는 UN기구와 NGO기관의 담당자들이 구성된 인적 네트워크이다. ‘청년 역량 강화’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진 만큼 매월 모여 적극적으로 정보공유가 이루어졌다. Youth Programme Specialist로서 APINY월례회를 주관하는 상사를 보조하여 작성한 회의록을 차기 일정과 함께 참가자들에게 공유하는 등 행정 업무를 맡았다.

담당 업무 2. 아시아 태평양 청년들의 평화구축 역량강화 및 안보 의식 제고

1) Asia-Pacific Regional Meeting of Young Parliaments on Preventing Violent Extremism

4월에는 스리랑카에서 개최된 아태지역 청년 국회의원 회의를 준비하는 행사의 기획과정에서 참가자를 선발하고 초청하는 logistics 업무를 담당했다. 회의 전 후로 참가자들의 의견을 모아 행사 담당자에 전달하는 coordination 및 홍보 업무를 맡았다.

2) Youth, Peace & Security Regional Consultation (안정보장이사회 결의안 2250 관련 활동)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위한 청년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50의 후속 연구의 일환으로 ‘Youth, Peace & Security’ 협의회가 지역별로 개최되었다. 5월, 아태지역에서 청년 및 평화구축 사업을 진행하는 거의 모든 UN 기구들과 다수의 공여국 정부 부처 및 NGO들이 UNDP BRH에 모여, 행사를 공동 진행하였다. 나의 역할은 평화구축 전문 UNV와 함께 UNDP를 대표하여 다른 협력기관 대표들과 workforce를 이루어 30개의 참가국에서 청년활동가를 선발하여 초대하고, 워크숍 일정과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행사 후에는 결과보고서 작성을 보조하는 역할로서 전반적인 업무에 기여했다. 평화구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하는 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의 실무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특히, 워크숍 2일째 진행된 토론회 행사에서는 진행자 (facilitator)로서 청년 평화활동가들의 의견을 조율하며 실제로 시민사회를 움직이고 지역사회 단위에서 변화를 이끄는 이들의 다양한 시각이 기관의 사업에 반영되는 과정을 배울 수 있었다. 워크숍 후 개설된 Youth4Peace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청년 평화운동가들이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도록 제공된 관련 자료와 Self-learning online toolkit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며 follow-up 활동을 지원하는 등 UNV 파견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Youth, Peace & Security사업에 기여하였다.

3) 국가사무소 청년 사업 지원 및 모니터링

7월에는 다른 아태지역 국가들에 모범이 될 수 있는 12개의 국가사무소의 성공적인 Youth-related peacebuilding 프로젝트를 골라 각각의 사업계획서 (project document)를 분석하고 요약한 것을 하나의 보고서로 재구성하여 전체 국가 사무소 (CO)에 공유하였다. 상사 (Youth Programme Specialist)의 지시와 안내로 Peacebuilding업무를 담당하는 인턴과 평화구축 전문 UNV 과 공동으로 연구하여 만든 결과물이라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peacebuilding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아태지역 전체 24개 국가사무소의 모든 청년 사업을 조사하고 각 사무소의 요청사항을 정리하여 상사에게 보고하는 역할과 각 국가사무소와 시민사회단체 (CSO)가 받을 수 있는 평화구축 및 청년 사업 보조금 (Grant)과 후원단체를 물색하여 CO 및 CSO 청년 사업담당자들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일을 수행하기도 했다.

맺음말과 감사의 말

6개월 간 다양한 업무를 맡으며 커리어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UNDP BRH라는 큰 사무소에서도 가장 바쁜 부서에 파견이 되었기에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다. 물론 각각의 파견 국가, 기관, 직무에 따른 변수가 많지만 UNV는 국제기구에서 개발협력에 관한 경력을 쌓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다. 개발 도상국에서 필드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장을 직접 보는 것만큼 그 현장에서 일하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건너 건너서라도 이야기가 듣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먼저 다가가 보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나 또한 방콕에서 근무하는 동안 용기를 내어 다양한 분들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구했던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UNV 파견 이후의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많이 보고 듣는 만큼 이쪽 분야에 대한 식견이 더 넓어진다고 생각한다. 내 경험을 비추어 보면, 다양한 경험은 큰 자산이 되었고 대외활동 등을 통해 만난 분들의 고견으로 더 큰 세상을 보게 되었다. 부지런히 준비하고 도전한다면 길은 열리게 되어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UNV 파견 기회를 주신 외교부에 감사한 마음을 꼭 전하고 싶다. UN의 일원이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된 순간부터 두 번의 UNV 파견을 통해 꿈을 향해 실천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외교부의 적극적인 정보 제공과 재정적 지원이 없었다면 모두 불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다양한 도움을 많이 받으며 걸어온 길인 만큼, 이 분야에서 도움이나 조언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언제라도 내가 아는 것을 나누고 싶다. 나의 이 체험 수기가 UNV 파견에 지원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끝/

<별첨: 활동사진>



사진1/2: UN 컨퍼런스 센터 Case4Space 사진전/ UNDP BRH Director, Valerie Cliff와 함께.



사진3/4: 아시아 청년 정책 워크숍 패널에서. / 발표하는 모습이 소개된 UNDP 트위터 글.



사진5: 아시아 청년 정책 워크숍 단체사진.



사진6: 전 UNDP 총재 Helen Clark와 함께 찍은 Youth, Peace & Security 단체사진.



사진7: Youth Unit의 다양한 행사 주최로 익숙해진 UN Conference Hall의 관계자 석.

사진8: UN Conference Hall을 가득 채운 천 명의 대학생 참가자 앞에서 발표하던 순간.



사진9: 항상 고맙고 사랑하는 코이카 UNV 태국 동기들과 UNDP BRH 로비에서.
(자유롭게 옷을 입을 수 있는 Casual Friday라서 생활한복을 입고 출근한 날!)

사진10: 외교부 청년 UNV 파견에 앞서 UNV Bonn 본부에서 이수한 APT 워크숍에서.